

# 광주·전남 '먹는 장사'도 안된다

## 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 올들어 음식점 7,500여곳 폐업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보니 음식점도 쉽지않은데요.” 지난해 퇴직금으로 광주시 동구에 분식집을 차렸다가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한 정모(58)씨는 “가족회의를 통해 어렵사리 결정했는데 문을 닫게돼 아쉽다”고 말했다.

개업 초기에는 학생 고객들로 그럭저럭 수지를 맞췄으나, 밀가루값과 기름값 등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그러자 정씨는 투자금의 절반이라도 건질 요량으로 지난 11월 문을 닫고 말았다.

정씨는 “막연하게 음식점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외식횟수는 줄고 음식점들은 계속해서 생기는 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조사를 철저히 했다면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들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이

기 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는 7천 개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3천여개소의 회원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의 경우 올 1~11월 폐업한 업체는 4천182개소로 새로 개업한 4천92개소를 앞질렀다.

1만6천788개소의 회원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지회 1~10월 개업업체 3천269개소, 폐업업체 3천232개소로 집계됐다.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각종 물가

가 인상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업하는 업체는 줄고, 폐업하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땅한 창업거리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음식점을 여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창업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위치나 고객들의 동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창업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일반음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세제혜택, 다양한 창업교육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모하비' 홍보 작품전

기아차가 내년 1월 프리미엄 대형 SUV인 모하비(MOHAVE) 출시 홍보를 위해 기아차 동대문지점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 '모하비 전(展)'을 마련한 가운데 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유명 조각가 10명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기아차광주점 제공)

## e뱅킹 저장 장치 '보안토큰' 서비스

### 농협 광주지역본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국내 은행 최초로 HSM(보안토큰)을 도입해 14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HSM(Hardware Security Module)이란 공인인증서 복사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휴대용 저장장치로 일반적으로 '보안토큰'으로 불린다.

'보안토큰'은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싱이나 해킹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HSM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인증을 10회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보안매체로, 3~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OTP(일회용비밀번호 발생기)에 비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금융기관 업무량을 경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화됨에 따라 1등급 보안매체인 OTP와 동일한 수준인 1억원까지 자금이체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농협은 HSM 도입과 함께 내년 1월부터 OTP가격도 5천원 수준으로 인하해 정부의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방침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종부세 신고·납부 오늘 마감

### 기한 내 안내면 체납 강제 집행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마감일이 17일로 마감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가 17일로 끝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돼 무신고·무납부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송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

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증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또 정식 고지서 상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15일 이후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의 금융계좌, 부동산 등 재산조치를

거쳐 압류당할 수 있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돼 금융활동에 제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자는 환급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간(12월 1일~17일) 경과 후 3년(2010년 12월 17일) 이내에 경정청구(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무납부자는 정식고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청구 기한 측면에서도 신고·납부자가 유리한 셈이다.

지난 10일 현재 종부세 자진신고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6%보다 높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국세청 부가세 환급금 조기 환급

### 수출 업체 자금난 해소 12월 신고분 연내 지급

국세청은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해 자금난을 덜어주기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25일

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12월 신고분의 경우 보통 이듬해 내년 1월10일까지 지급해왔으나, 이번에는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의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환급신고분을 연내에 지급하게 됐다.

조기 환급대상은 전국 수출업체와 시설투자 사업자 등 1만여명에 달한다. 조기 환급금을 연내에 지급받으려

▲조기환급=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일반환급), 조기환급은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 오는 20일까지 환급신고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늦어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차 '中 국민차' 만든다

### 한국 프라이드급 생산 추진

기아자동차가 향후 '중국 국민차'를 개발,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큰 부담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 국민차’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기아차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가 향후 생산할 ‘중국 국민차’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오 천리마’(한국명 프라이드)와 같은 소형급이나, 플랫폼 등을 달리 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완료 및 중국시장 투입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설계부터 새롭게 함으로써 점차 다가오르고

## 석유 의존도 13년만에 상승세

### 2008 에너지 수요 전망 전체 에너지원 중 45%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석유 의존도가 1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산업·발전용 유연탄 소비증가로 석탄 의존도는 17년 만에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08년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수요에서 석유의 비중은 올해 석유 수입과 소비동향을 봤을 때 45.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는 1978년 63.3%를 최고 기록으로 꾸준히 하락했으나 저유가 시대의 장기화와 석유 화학산업의 확대 등으로 1994년 62.9%까지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늘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사용 절감책이 강화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43.6%까지 떨어졌다.

연구원은 2006년의 석유 소비증가세가 0.6%에 그쳤지만 올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원료인 나프타의 수요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7억8천93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났다. 1985년 39%를 넘었던 석탄의 비중은 하락추세를 이어가며 1997년 18.7%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24.3%를 기록했고 올해는 25.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의 비중이 25%를 넘는 것은 1990년(26.2%)이 마지막이었다.

있는 중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가격은 과거 현대차의 엑센트를 활용해 기아차가 중국에서 생산한 천리마가 5만~10만 위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리오 천리마가 7만~10만5천 위안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아차의 ‘중국 국민차’는 현대차의 상트로가 ‘인도 국민차’ 수준으로 자리잡은 것과 무관치 않다. 상트로는 1998년 인도 현지 생산 이후 지난 11월까지 총 85만4천568대가 팔렸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아시아나 항공

### 美 세관 보안인증 획득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계 항공사 최초로 미국 세관으로부터 테러 예방 화물 보안프로그램인 ‘C-TPAT’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TPAT는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및 무기 등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미 세관 국경경비국이 설정한 반테러 보안 프로그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미 세관에 화물대리점 및 협력업체 보안통제 현황, 화물탑재용기 보안통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화물보안프로그램을 제출해 C-TPAT 회원사로 인증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항공화물의 안전 및 보안 절차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리게 됐으며 신속 통관을 비롯한 다양한 세관관련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용항공 무안 - 타이페이

# 주2회 정기운항

www.trotkorea.co.kr

<h2 style="color: red;">무안 취항기념 특가 (12/20, 12/23)</h2>	<h2 style="color: red;">599,000 원</h2>
<p>대만/야류/화련 3박4일</p> <h2 style="color: red;">499,000 원</h2>	<p>대만/심천/홍콩 4박5일</p> <h2 style="color: red;">799,000 원</h2>
<p>대만/야류/화련 4일</p> <h2 style="color: red;">599,000 원</h2>	<p>대만/심천/홍콩 5일</p> <h2 style="color: red;">889,000 원</h2>
<p>대만-일월담-화련 5일</p> <h2 style="color: red;">679,000 원</h2>	

문의 : 062-228-0097 (유지 : 062-228-0097)